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일어교육과는 AI 디지털 시대의 일본어교육을 선도하는 ‘준비된 교사’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일본어 교육 능력, 일본어 탐구 능력, 일본문화 이해·콘텐츠 제작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교육에 이바지한다.

뛰어난 일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일본어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해 일본어 커뮤니케이션능력, 일본어교육, 일본어학, 문학, 사회, 미디어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다양한 소그룹 운영과 일본의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교육현장과의 지속적·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미래지향적 일본어교사로서의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육
목표**

1. 일본, 일본어, 일본문화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2. 전공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준비된 일본어교사 및 글로벌 인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한다.
3.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일본·일본어·일본어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최현필	- 중등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이해 능력 도모 - 일본어교육의 이론과 방법 습득 - AI·에듀테크 이용 등의 디지털리터러시 함양 - 진취적·미래지향적 일본어교사·일본어교육 전문가 육성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조선영	- 일본어학 분야의 문법과 어법, 표현법과 문체, 경어 등 전반에 걸친 지식 습득 도모 - 일본어학 탐구능력을 갖춘 어학 전문가 육성
일본문화 콘텐츠 전문가	하야사와 마사토	- 일본문화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일본, 일본인, 일본지역에 대한 이해 심화 - 창작 및 글쓰기에 관한 심화학습을 바탕으로 국내 일본계 기업 취업과 일본 유학, 일본 내 기업 진출 - 일본문화·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여 일본 지역 전문가 양성

진로

-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중등교사, 기간제 교사, 학원강사, 교육공무원, 국내외 대학원, 일본 문부성 국비유학
-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출판, 통번역 관련 국내기업, 국내 일본계 기업, 일본 내 기업, 공기업,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일본문화 콘텐츠**: 일본유학, 국내 일본계기업 및 일본 내 기업 취업,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자격증

-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중등교사자격증, JLPT, JPT, 일본어한자능력검정(KANKEN), 일본어 워드프로세서
-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JLPT, JPT, 일본어한자능력검정(KANKEN), 일본어워드프로세서
- **일본문화 콘텐츠 전문가**: JLPT, 일본어한자능력검정(KANKEN), 일본어워드프로세서자격증

▣ 비교과 활동

-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일본어교육연구회 소모임, 현장중심 교육봉사 활동, 교사와의 멘토링 활동, 현장중심 교육활동(자유학기제), 인천광역시 일본어교과 연구회 연계 활동, 해외교육실습, 교수-학생 전공심화 연구모임
-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일본어미디어교육연구회 소모임, 미디어콘텐츠제작, 전공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멘토링활동 : 현장 중심 활동, 교수-학생 전공심화 연구모임
- **일본문화 콘텐츠 전문가**: 해외학술답사 및 소모임(도모다치) 활동



1학년

2학년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일본문화 콘텐츠 전문가

		일본어강독	
공통	일본어입문 I		
필수		초급일본어회화	
심화	일본어입문 II 일본어한자 자기설계세미나	미디어일본어 일본어음성교육	일본어회화
		일본어강독	
공통	일본어강독		
필수	일본어문법 일본어교육방법론	일본어학개론 일본어문장의 이해	
심화	일본어융합교육의 실제		현장일본어회화 I, II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화

3학년

	일본어교사 및 융복합교육 전문가	일본 전문가 및 연구자	일본문화 콘텐츠 전문가
공통	디지털콘텐츠제작교육		
필수	일본어교과교육론 일본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본어표현지도	
심화	일본어교육현장세미나 다문화이해와 인성교육	일본어작문	일본근대문학 일본문학지도법

4학년

심화	일본어교육세미나 비즈니스일본어교육		일본어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문학작품번역지도
----	-----------------------	--	-------------------------------

관련 전공

전공명	일어일문학	일어일문학	일어일문학
과목명	일본한자문화의 이해 일본어학 세미나 현대일본사회의 이해 일본지역학 캡스톤디자인	일본어 언어와 생활 일본의 언어와 사회 일본어학사 한일언어문화의 비교 일본어문화와 여성	일본사정일본 일본근현대사 오늘의 일본 한일비교문화론 일본지역조사연구 일본학특강

석사, 박사

대학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문화대학원
전공명	일어교육전공	일어일문학	지역문화기획전공 문화관광산업전공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 중등학교 교사 : 충청남도교육청(일본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일본어, 윤리, 역사), 경기도교육청(일본어, 윤리, 역사), 전라북도교육청(일본어), 충청북도교육청(일본어)
- 공립유치원 교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 공무원 : 우정사업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행정), 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 경기도청(일반행정),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
- 교육기관 : 인하공업전문대학, 성산호대학원대학교
- 국내·외 기업 : (주)제주항공, 이스타항공(주), SK넥실리스, 신라면세점, 에듀플러스, 네이버, 참좋은여행(주), 신한은행 등

■ 전공 트랙별 진로·취업 역량 강화 전략

학년	진로디자인	교원 임용 대비	전공소양, 교원 임용 외 진로 대비
1	전공이해 자기이해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전공 및 자기 이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인·적성 검사, 지도교수 상담, 전공교과 학습 - 전공역량강화 특강 I - 일본 탐방 프로그램 참가 지도 - 소모임(일본어미디어교육연구회) · 신입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교육봉사, 교직원 함양, 진로탐색, 전공 관련) 활동 - 신입생·재학생 멘토링(멘토-멘티 매칭, 스터디) · 취업경력개발원 진로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코칭교육(개별 및 학과 차원 진로코칭) 	
	현장역량강화	중학교 교육활동 실천(자유학기제 지원)	일본어미디어교육연구 발표회, JLPT N1, N2, N3 취득
2	진로분야 직무결정 복수전공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및 임용 스터디 조직 · INU 멘토링(교직) · 교원 임용시험 준비 지원 · 교사-학생 멘토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U 멘토링(취업) · 일본어 관련 대회 참가
	현장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학술답사 · 교환학생 파견 지도 · 교수-학생 전공심화 연구모임 I · 전공역량강화 특강 II · 소모임(교육봉사, 교직원 함양, 전공 관련) · 모의수업 및 프레젠테이션 대회 · 중등학교 교사 연수 참관 	일본어교육연구발표회, JLPT N1, N2 취득
3	진로분야 직무역량강화 경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문부성 국비유학 신청, 지도 · 임용고사 학습 지도 · 교원 임용시험 준비 지원 · 교사-학생 멘토링 활동 · 전공취업동아리(임용 대비 심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취업동아리(취업) · 채용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 INU 멘토링(취업)
	현장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역량강화 특강 III · 소모임(일본어교육연구회) 	사범대학 모의수업경연대회, JLPT N1 취득, 한국사검정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4	실전취업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고사 실제 탐구 · 교원 임용시험 준비 지원 · 면접대비, 집단토론, 수업능력 강화 · 임용고사 실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취업동아리(취업) · 인턴 활동 및 실무 지도 · INU 멘토링(취업) · 채용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현장역량강화	JLPT N1 또는 JPT 880점 이상, 영어졸업인증, 졸업종합시험	중학교 교육활동 실천(자유학기제 지원), 학교현장실습, 일본국제교류기금 전국사범대학생 일본어 교육 연수

S
강점

주요 진출 현황 : 학과 진로 취업 SWOT 분석

- **예비교사 현장중심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지원
 - 해외교육실습 및 해외학술답사 실시
- **지역 일본어교육 활성화 기여 : 지역 일본어교과연구회와의 연계구축**
 - 인천지역 고등학생 일본어 관련 교육활동 지원
- **진로취업역량강화 활동 실시**
 - 현직 교사 및 기업 임직원과의 INU멘토링 실시
- **변화하는 학교 교육현장에 대비한 다문화·다언어교육/융복합교육 지향**
 -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 복수전공의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지원
 - 복수전공 활성화
- **국립대 사범대학 일어교육과로서의 위상**

W
약점

-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부족**
 - 최근 증가 추세이나 과거에 비해 아직 부족

O
기회

-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모집 정원 증가**
 - 중등학교 일본어과 교사의 정년 및 명예퇴직 인원 증가 추세
 - 고교학점제 활성화
 - 복수전공 장려
- **직무중심(NCS) 및 블라인드 채용제도 확산**
- **청년고용정책 사업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해외인턴 등
- **교육공무원 진출 활성화**
- **일본의 해외인력채용 증가**

T
위협

- **대학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
 - 학령인구감소,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등
- **청년고용절벽 심화**
 - 세계경기악화 → 청년고용시장 악화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요 진출 현황 : 커리어넷

커리어넷



주요진출분야



- 학계 및 연구기관 : 공사립 중·고등학교, 대학, 외국어 교육 관련 연구소
- 기업 및 산업체 : 시민사회단체, 여행사, 출판사, 방송국, 신문사, 애니메이션 회사, 문화콘텐츠 회사, 관광회사, 무역회사, 호텔, 사설 학원, 일본현지 기업, 통번역 회사, 외국계 기업, 증권사, 은행, 국제기구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 교육청, 교육부, 외교부, 일본 대사관 등 일본어 관련 공공기관

진출직업

- 관광가이드, 무역담당자, 사범계열교수, 승무원, 언론인(기자, PD, 아나운서 등), 외교관, 작가, 중등학교교사, 출판물기획자, 통번역가, 통역사, 학원 강사

※ 자료출처 : 커리어넷(www.career.go.kr) → 학과정보 → 일어교육과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중·고등학교 교사 직업소개



중·고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열 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범계열학과에 진학하면 각 교과목의 내용과 전달방법, 각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육학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학과) 등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보통 4학년 1학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과 이론을 기초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한다.

하는 일	국·공·사립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서, 시청각 자료, 실험 장치와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자격/훈련	관련학과	관련자격	훈련정보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임금 / 직업만족도 / 전망	하위(25%) 3,885만원 중위값 4,540만원 상위(25%) 5,950만원	79.4%	감소(50%) 현상유지(43%) 증가(7%)
	업무수행능력	지식	환경
능력/지식 / 환경	학습전략(99) 가르치기(98) 모니터링(Monitoring)(93) 사람 파악(91) 선택적 집중력(91)	교육 및 훈련(100) 역사(99) 철학과 신학(99) 사회와 인류(99) 상담(98)	연설, 발표, 회의하기(90) 공문, 문서 주고받기(90)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82) 사람들과 직접 접촉(78) 다른 사람과의 접촉(77)
	성격	흥미	가치관
성격/흥미 / 가치관	타인에 대한 배려(96) 사회성(95) 리더십(94) 협조(93) 독립성(92)	사회형(Social)(98) 관습형(Conventional)(80)	이타(98) 애국(97) 심신의 안녕(96) 고용안정(95) 타인에 대한 영향(95)
	중요도	수준	
업무활동	사람들을 훈련, 교육(100)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100)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8) 사람들을 배려, 돌봄(98) 대인관계 유지(97)	사람들을 훈련, 교육(100)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99)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7) 팀 구성, 협업 촉진(96) 협상, 갈등 해결(96)	
일자리 현황	중·고등학교 교사		
관련직업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보조 교사		

• 외국어교사

- 직무개요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외국어 및 관련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한다.
- 수행직무 : 교과내용은 언어기능, 의사소통활동, 언어재료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독해, 회화, 작문 등에 대해서 배운다. 해당 외국어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법과 더불어 일상회화에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 감각과 놀이중심의 체험학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매체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언어 감각과 회화기법을 지도한다. 교과서 및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 및 지도한다.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해외영업원 직업소개



해외영업원

해외영업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해외영업원은 외국어 실력이 요구되므로 관련학과나 학원에서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취업 후에는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회사의 내·외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영업능력 향상과정 등의 과정이 기업체나 훈련기관에 개설되어 있다. 해외영업원은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며 퇴사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수시 채용의 형태로 취업한다. 취업 전에 영업경험 및 해당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직업경험이 있으면 인직 및 영업활동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 유리한 면허 및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다. 해외영업원은 의류, 제약 등 도·소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출업체, 자동차업체, 산업용장비 등 각종 장비 및 설비제조업체, 정보통신 판매업체 등에 고용되어 있다. 해외영업원의 승진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와 비슷하지만 판매실적이 우수하여 능력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조기 승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판매 실적이 우수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영업원으로 경력이 쌓이고 자금력을 갖추면 무역상, 대리점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일	회사의 제품, 상품,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 상품 분석,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고객을 발굴하여 거래를 제안,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고객과의 계약 이행, 클레임 처리 및 고객 관리를 한다.		
교육/자격 /훈련	관련학과	관련자격	훈련정보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학과 기타 아시아어·문학과	유통관리사(국가전문)	해외 영업원
임금 /작업만족도 /전망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하위(25%) 3,626만원 중위값 4,144만원 상위(25%) 4,835만원	66.7%	감소(16%) 현상유지(56%) 증가(26%)
능력/지식 /환경	업무수행능력	지식	환경
	협상(95) 설득(93) 말하기(88) 시력(87) 재정 관리(87)	영어(99) 영업과 마케팅(98) 운송(98) 상품 제조 및 공정(95) 산수와 수학(93)	갈등 상황(98) 이메일 이용하기(93)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 상대(90) 반복적인 신체행동, 정신적 활동(88) 공문, 문서 주고받기(87)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성격	흥미	가치관
성격/흥미/가치관	협조(90) 사회성(87) 적응성/융통성(80) 타인에 대한 배려(77) 분석적 사고(76)	진취형(Enterprising)(88) 관습형(Conventional)(79)	다양성(91) 애국(90) 심신의 안락(88) 성취(85) 인정(83)
업무활동	중요도	수준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9) 업무상 사람들을 직접 응대(99)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8)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98) 협상, 갈등 해결(97)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9) 업무상 사람들을 직접 응대(99)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7)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96) 목표, 전략 수립(94)	
일자리 현황	해외영업원		
관련직업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통역사 직업소개

통역사
[직업소개]

통역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어 전달한다. 통역사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한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가 모여 중요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회의, 협상, 세미나 등의 자리에서 외국어로 정확하게 의사소통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사(Conference Interpreter), 수행통역사(Escort Interpreter), 통역가이드(Guide Interpreter) 등으로 활동한다. 국제회의통역사는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행사 등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 통역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수행통역사는 의뢰인이 이동하는 장소를 따라다니며 통역하는데, 주로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입국하면 이들과 일정을 함께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하는 일을 담당한다. 통역가이드는 외국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안내하며 통역한다. 이외에 법정에서 외국인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나 검사 등의 심문내용을 외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아하는 법정통역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통역도 점차 전문화되어 정보기술(IT), 경제, 정치, 의학 등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료통역사의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언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통역은 크게 동시통역과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으로 나뉜다. 국제회의나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은 보통 2명이 한 팀을 이뤄 진행하며, 별도로 마련된 통역버스 안에서 발표자가 하는 말을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즉각적으로 통역한다.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이때 청중은 수신기를 통해 통역내용을 듣는다.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은 양쪽 언어가 모국어 수준의 능통한 경지에 이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동시통역사로 불리는 전문 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사를 말한다. 순차통역은 발표자가 연설을 하면 연설 내용을 재빨리 기록한 후 바로 말을 이어 자신이 발표하듯 청중을 향해 통역하는 것이다. 이때 발표자는 통역을 고려하여 적당한 길이로 말을 끊어서 하게 된다. 동시통역사는 통역 부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얼굴을 볼 수 없는 반면, 순차통역은 공개석상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옷차림과 용모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위스퍼링(Whispering) 통역은 말 그대로 속삭이듯 귓속말로 통역하는 것을 말한다. 듣는 사람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발표자의 연설을 이해하였더라도 참석자 중 한두 명이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상황을 파악한 통역사가 그 사람에게 따로 귓속말 통역을 해준다. 그 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화상으로 회의할 때 위성중계 화면을 보고 통역을 하는 원격통역, 여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국제회의에서 한 번 통역한 내용을 다시 다른 언어로 옮겨 통역하는 릴레이 통역 등이 있다.

[업무환경]

통역 목적, 회의 규모 등에 따라 근무시간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국제회의의 경우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 강도가 세며, 발표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이다. 수행통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온종일 외부에서 이동하며 통역을 하거나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통역사는 국제회의, 세미나 등이 많이 열리는 봄, 가을에 특히 분주하고,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필요역량]

통역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외국어에 대한 남다른 흥미와 구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회의 통역의 경우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학과에서는 영어, 중국어, 불어, 일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 하며 동시통역,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 등 다양한 통역방법의 실무를 비롯해, 정치, 경제,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통역번역대학원은 입학시험도 까다롭고 입학 후 학습강도도 쎈 편이다. 취업준비생들 가운데서는 이들 대학원을 목표로 전문입시학원에서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주요 진출 현황
: 직업

많다. 한편, 통역사는 모국어, 즉 우리말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외국어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읽어 전문 지식을 쌓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 관련 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미어·영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 국제지역학과, 통역학과(통역번역대학원) 등

[경력개발]

통역번역대학원 졸업 후 학교나 선배 추천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역 알선 전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하기도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공채를 거쳐 전담 통역담당자로 채용된다.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므로 특별한 승진 체계는 없다.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높은 통역료를 받게 된다. 대개 30대 후반 정도까지 통역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이후에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번역가로 활동하거나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한다. 무역회사, 외국계 회사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10. 영업판매 → 01. 영업 → 01. 일반·해외영업 → 02. 해외영업

NCS 직무명 : 해외영업

[직무정의]

해외영업은 판매시장의 확대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하여 회사의 상품을 해외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 | |
|--------------|-----------------|
| ① 해외시장 조사 | ② 해외영업 상품 분석 |
| ③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 ④ 해외 잠재고객 발굴 |
| ⑤ 해외거래 제안 | ⑥ 해외고객 협상 |
| ⑦ 국제계약체결 | ⑧ 해외영업 계약 이행 관리 |
| ⑨ 해외 클레임 처리 | ⑩ 해외고객 관리 |



취업성공 수기

일어교육과 우○○ - 교사



■ 합격정보

- 기업명 : 선화여자중학교
- 졸업년월 : 2019년 02월
- 입사년월 : 2021년 03월

■ 기본 인적사항

- 평균학점 : 3.58
- 기타 외국어 : JLPT N2
- 영어회화점수 : IM2
- 자격증 : 일본어 정교사 2급, 역사 정교사 2급
- 취업시 연령 : 30
- 수상경험 : 우수 스테디그룹 장려상
- 봉사활동 : 교육봉사 약 100시간
- 해외경험 : 2주 일본 대학 체험
- 동아리 : 친환경 도시농업 동아리

■ 취업 준비 과정

시작에 앞서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어교육과를 전공하면서 역사교육과를 복수전공하였고, 복수전공 과정 중에서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졸업만 일단 하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서 남들 다 보는 초수 시험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시험 신청은 하였지만, 2018년 눈이 오는 시험 날 여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자고 생각하고 집에서 시험지만 오후에 다운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만큼 저는 기초가 없었고 다른 누구보다도 임용고시에 무지했습니다. 이러한 저도 합격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스테디입니다. 지금부터 **스테디**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6주차로 나누어서 각 파트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각자 개론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오고 풀어보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인출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여 문제 푸는 시간 전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복습 인출도 진행했습니다. 역교론의 경우는 문제를 만들지 않고 개론서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풀게 하여 많은 사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과서

사료와 사료로 보는 시리즈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교과서 안에 있는 사료들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문제 만드는 시간을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각 파트당 4문제씩 만들었는데, 4문제 만드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설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팁은 문제와 해설지를 만들 때 기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임용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론서와 자료들을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문제를 만든다면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만드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문제들은 스프링 철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 이후에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터디에서 서로 만들어 풀어본 문제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차 시험에서 저희가 만든 문제가 절반 정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개론서**를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서브노트 없이 교재로만 공부한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기본 교재와 서브노트 틀을 바탕으로 제가 더 많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서브노트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백지부터 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와 동양사는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식으로 학습했습니다. 서양사와 역교론의 경우에는 경기합격자 서브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더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시 남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볍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본 유튜브는 '함께 하는 세계사' 와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 등입니다. 또한 교과서를 핸드폰으로 한 번씩 더 보면서 특이한 사료나 개념들을 익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암기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단순 무식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먼저 개론서를 읽고 서브노트를 읽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백지에 여러 번 써보면서 암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손이 많이 아프긴 했지만 계속 써보면서 암기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9월부터는 최종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스터디 방향도 본격적 암기 쪽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1월까지 총 3바퀴를 돌려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개론서 읽는 시간을 줄이고 암기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전화로 스터디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화로 인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후 복습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스터디 시간은 2시부터 9시까지 약 7시간을 계획하였고, 이때부터는

취업성공 후기

교육학도 함께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학은 9월 이전에는 서브노트를 간단하게 만들고 조금씩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여 집중하지 못했는데 스터디 인출을 통해서 기본 개념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 때 실제처럼 아침에 시간 맞춰 풀고 채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학원 모의고사 성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년도와 다르게 20년에는 2번에 걸쳐서 채점도 해주셨는데, 채점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보니 꽤 높은 점수가 나와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진짜 붙을 수 있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이후에는 틀린 문제들과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문제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시기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낙담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하고 노력한다면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0월은 암기와 스터디를 통해 보냈다면 1월은 더 독한 암기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19년도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후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써보자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1월 시험 직전까지 하루 14시간 공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잠도 좀 더 줄이고 휴식시간도 줄여서 마지막 짜내기 암기를 실시했습니다. 이 때는 개론서는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학의 경우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료로 배포한 모의고사나 기타 자료들을 수집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이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답안 복기 이전에 슬럼프 극복과 휴식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럼프 극복 방안**입니다. 일단 먼저 재수 이상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1월, 2월 슬럼프 극복방안입니다. 저는 이 때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맘 편히 드라마, 영화도 보면서 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난 뒤에 계획을 천천히 짜보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도 보이겠지만 자신의 마음가짐도 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처음 공부 시작할 때의 슬럼프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5월, 8월쯤 오는 슬럼프입니다. 이때는 지칠 시기라서 책도 잘 안 읽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저는 이때는 과감하게 하루를 통째로 쉬었습니다. 효율 없는 공부를 하면서 꾸역꾸역 앉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 쉬고 다음날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맘 편히 하루를 쉬었습니다. 단 꼭 하루만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틀을 넘어가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하루 등

안 마음 정리도 해보면서 쉬다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8월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일도 겹치고, 못 만난 친구들도 생각나고, 바다도 놀러가고 싶고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일주일에 하루에서 반나절은 쉬고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이때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결정인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9~1월 공부에서는 슬럼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슬럼프가 올 때는 휴식을 꼭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럼프 중에서 불확실함에 대한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암기가 잘 안돼서 짜증이 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를 말합니다. 저는 이 때 스터디 원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상담해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스터디 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서로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응원해주며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많은 응원을 받으며 다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공부하면서 힘든 슬럼프를 겪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식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워낙 다를 것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쉬었습니다. 주로 자기 전에 유튜브 1시간정도 보고 자거나, 일요일에 쉬는 날에 영화관에 혼자 가서 영화를 보고 오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매일 매일을 휴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쉬다면 죄책감 느끼지 않고 폭 쉬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과 체력은 꼭 필요합니다. 휴식할 때 죄책감 가지지 않고 폭 쉬고 공부한다면 공부에도 집중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휴식할 때는 죄책감 가지지 않고 맘 놓고 쉬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 서류 후기

원서 접수 때 인천보다는 1차 붙을 확률이 높은 강원을 쓸까 고민했었는데, 시험 보고나서 강원 쓸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2월에는 시험이 끝나고 2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고, 여러 개인적인 문제로 멘탈이 부서져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 발표 날 예상했던 대로 시험은 떨어졌지만, 의외로 높은 성적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인천이 아닌 강원이나 경기를 썼으면 붙었을 점수이기 때문에 후회도 되었고, 다시 1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때 다른 지역을 썼어도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2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성공 후기



☞ 시험 후기

1월 21일 마침내 2021 중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이틀 전 노량진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크게 동요가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잘 보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 선후 처음 교육학 시험지를 받은 순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교육학 개념들 위주로 공부했었던 저인데,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바른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저는 제대로 접근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었습니다. 어찌어찌 교육학 답을 다 쓰고, 전공 A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또 큰 당황하였습니다. 일단 1번문제인 교육과정문제부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황했고, 이후 문제들이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특히 서양사)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전공 B까지 풀고 나서는 중간 중간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엄청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 것이 꽤 높게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실수 최대한 줄이고 푼 문제들이어서 점수가 나쁘지는 않겠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두 번 겪어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집중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서 읽고 답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습관을 들여놓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해 마음을 비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문제가 쉽든, 어렵든 나는 붙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수하지 않고 풀어본다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 후기

저는 학원 카페를 통해 2차 스테디를 구했습니다. 같은 인천 지역을 쓴 3분과 함께 4인 스테디로 조직하였고, 시험 다음 주 일요일에 모여서 바로 스테디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천이어서 인천 부평에 스테디 룸을 잡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수업과 면접 방향을 잡고, 면접을 좀 더 많이 다뤄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해보면서 혼자 공부할 시간도 적고 매우 힘들어서 주 3회로 바꾸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업 구상 20분, 실연 20분입니다. 면접은 구상 20분, 면접 시간 총 20분으로 구상형 2문제와 즉답형 2문제가 나옵니다. 인천은 비지도안지역이고, 면접의 경우 자체출제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원지역보다는 점수의 변별이 큼니다. 또한 면접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1문제당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 정도로 즉답형에서도 5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저희 스테디는 먼저 수업에 경우 선생님을 위한 수업실연 책을 활용하

는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비지도안 수업실연 구상지도 추가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쉬웠습니다. 문제 질도 훨씬 좋아져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숫자로 적어서 문제를 만들고 당일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바로 구상하고 실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 만드는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건을 많이 넣어서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구상해보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과목은 주로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동아시아사는 중간에 몇 개의 단원만 넣어서 한국사 중심의 동아시아 파트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수업실연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하루에 면접 3서클을 돌리는 식으로 해서 1서클당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씩 총 12문제를 풀도록 계획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면접이 중요하다 보니까 면접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각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문제는 따로 만드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본 문제를 익히고 가자는 마음으로 면접레시피 뒤에 있는 구상형 5문제 즉답형 5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피드백의 경우 포스트잇에 수업과 면접에서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을 적어서 주고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면접은 촬영하지 않았고, 수업은 각자 촬영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19년도에 촬영하고 제가 직접 제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매일 찍는 영상을 확인하고 제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경우 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간단한 판서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 주 내용들을 파악해보도록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2차 수업 준비의 가장 큰 목표를 조건 지키기로 잡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나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건을 다 지키도록 연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저만의 수업 틀을 만들도록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격하신 쌤과 교직에 있는 다른 과목 친구에게 부탁하여 영상을 보내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북 합격하신 쌤은 주로 내용적인 측면과 판서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친구는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수업의 톤, 상호작용 등과 같은 면을 많이 봐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다보니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쉬웠고 이덕에 수업 실력이 나날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레시피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면접레시피 책을 바탕으로 답변을 연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묻는 문제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즉답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업과 마찬가지로 면접도 기본적인 답변을 잘해서 조건을 지켜서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 후기

시책의 경우에는 아직 2021년 시책이 나오지 않아서 2020년 시책을 활용해서 공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인천이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키워드, 슬로건 등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 내가 면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해체적으로 읽은 뒤 노트에 면접레시피와 함께 정리하여 답변에 녹여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면접레시피 요약은 노트에 정리했다면 그 뒷장에는 인천시 시책 중에서 기초학력 보장 파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요약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의 면접 스타일은 시책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책을 알고 답변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특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면접 답안 구상할 때 기본적 뼈대는 면접레시피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고, 추가적일 사례나 덧붙이는 말을 할 때 시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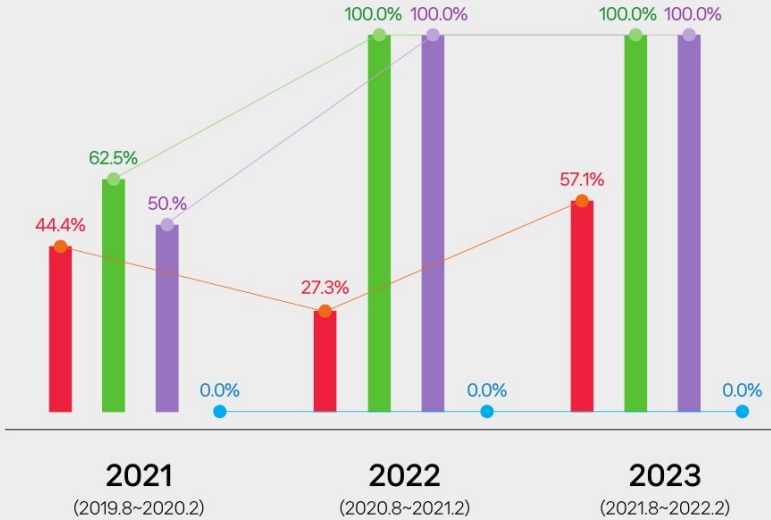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제가 2년간 역사 임용을 준비하면서 겪은 저의 경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우 부족한 저의 수기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합격자 수기의 경우 참고는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저의 합격수기를 모두 읽으셨다면 좋은 부분은 가져가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을 시험보신다면 2차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참 잔인합니다. 함께 노력하며 공부하였는데 누구는 멀어지고 누구는 붙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이 있듯이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도 합격하였는데 저보다 뛰어난 선생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자존감을 높이셔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선생님들은 한명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취업 및 진학현황

■ 취업률 ■ 1차 유지취업률 ■ 4차 유지취업률 ■ 진학률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18명	18명	8명	0명	44.4%	62.5%	50.0%	0.0%
2022	11명	11명	3명	0명	27.3%	100.0%	100.0%	0.0%
2023	14명	14명	8명	0명	57.1%	100.0%	100.0%	0.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시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시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